

## 18~19세기 김해 지역의 상품 유통권과 유통 물품\*

김 동 철\*\*

1. 머리말
2. 포구 유통권의 실태
3. 장시 유통권의 실태
4. 주요 유통 물품의 특징
5. 유통 물품과 왜관과의 관계
6.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장시와 포구를 중심으로, 18~19세기 김해 지역의 상품 유통권과 거기서 유통된 주요 물품들의 실상을 밝히려고 한 논문이다. 18~19세기 지방 상업은 장시와 포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장시는 5일마다 장이 서는 정기시장이 중심이다. 장시는 18세기 후반에는 이미 일상적인 교역 기구로 정착되어 있었다. 포구에서는 船商들을 중심으로 상업이 이루어졌다. 포구를 장터로 한 상업 활동은 포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시와도 연계되어 있었다. 중요 포구는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상업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낙동가 하구에 위치한 김해 지역에는 크고 작은 포구가 발달하였다. 칠성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구의 하나였다. 김해 지역 船商들은 주변 경상도는 물론 멀리 강원도까지 상업 활동을 하였다. 김해에는 5개 정도의 장시가 있었다. 김해의 지리적 특징 때문에 장시에서 유통되는 물품은 수산물이 많았다. 『임원경제지』에는 전국 320여 장시에서 유통되는 물품이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history@pusan.ac.kr)

적혀 있다. 그런데 거위와 오리는 320여 장시 가운데 김해가 유일하다. 김해에 가까운 부산 왜관의 일본인들은 겨울철에 특히 오리넴비요리를 좋아하였다. 오리는 낙동강 연안에서 잡히는 김해 지역 사람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왜관의 영향 때문에 김해 지역 장시에서는 일본 물품[倭貨]도 유통되고 있었다.

\* 주요어: 김해, 장시, 포구, 왜관, 왜화

## 1. 머리말

시장은 인간이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고 매매하는 구체적인 장소다. 조선 후기 지방상업은 장시와 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시는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진 정기시장이다. 장시는 1770년대에는 전국에 1,000여 곳이나 있을 정도로, 이미 일상적인 교역·유통기구로 정착되었다. 장시가 양적·질적으로 발전하면서, 1달에 6번 열리는 5일장으로 자리잡았다.<sup>1)</sup> 5일마다 장이 서므로, 한 군현 안에 5곳 장시만 있으면, 1달·1년 내내 장이 서는 5일장 체계가 형성되었다.

17세기 이후 대동법이 실시되고, 17세기 후반에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등 상품화폐경제 발달에 따라, 포구도 물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船商을 중심으로 한 포구상업은 포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 대포구와 주변 소포구, 그리고 장시를 연결하는 유기적 유통권을 형성하였다.<sup>2)</sup> 서울 경강포구, 은진 강경포, 김해 칠성포, 덕원 원산포 등이 해상 유통권의 대표적인 포구로 자리잡아 갔다.<sup>3)</sup> 낙동강 하구에 자리잡은 김해 칠성포는

1) 이현창, 「시장교환」, 한국고문서학회 지음, 『조선후기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0, 207~216쪽; 고동환, 「상업과 도시」,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상), 지식산업사, 2008, 429~431쪽.

2)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145쪽.

3) 고동환, 「조선후기 선상활동과 포구간 상품유통의 양상-표류관계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320~321쪽; 고동환, 앞의 책, 145쪽.

남해안의 대표적인 포구다. 그리고 인접한 창원 마산포장은 『만기요람』에 의하면 우리나라 15대 장시의 하나다. 이처럼 김해는 낙동강 강운과 남해안 해운이 만나는 물류 중심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김해 지역 장시·포구를 주제로 한 상업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장시 일반,<sup>4)</sup> 경상도 지역 장시 일반,<sup>5)</sup> 경상도 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와 교통망,<sup>6)</sup> 지방의 포구나 선상 활동과 관련된 칠성포 등 김해 지역 포구와 선상,<sup>7)</sup> 이학규가 1801~1824년 김해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쓴 「金官紀俗詩」·「觀市八十韻」 등 작품에 투영된 김해 지역 상품화폐경제의 모습,<sup>8)</sup> 왜관과 김해와의 관계<sup>9)</sup> 등 연구의 행간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독립된 주제로는 김해 가락지역에 한정하고, 상품 유통의 발달을 개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sup>10)</sup> 이런 연구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김해를 대상으로 하여 장시·포구를 중심으로 한 상품유통의 실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논문은 18~19세기 김해 지역 상업사를 본격적으로 고찰한 첫 시도이다.

4)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1997.

5) 한상권, 「18세기말~19세기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 서울대 국사학과, 1981.

6) 변광석, 「18·19세기 경상도 남부지역의 상품유통구조」, 『지역과 역사』 5, 부경역사연구소, 1999; 변광석, 「조선후기 경상도 수로·해로의 교통망 발달과 오광대 문화」, 『역사학연구』 59, 호남사학회, 2015.

7) 고동환, 앞의 논문, 1993; 고동환, 앞의 책; 고동환, 「조선후기 상선의 항행조건-영·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3, 한국사연구회, 2003; 전덕재, 「조선시대 영남지역 포구와 나루의 변천-낙동강유역의 포구와 나루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6.

8) 심경호, 『한국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허경진, 「조선후기 한문학에 나타난 상업문화」, 『동방학지』 12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3;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연구」, 보고서, 2005; 이국진, 『낙하생 이학규의 시문학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안미정, 「이학규의 「금관죽지사」·「금관기속시」 연구번역」, 부산대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9) 김성진, 「조선후기 김해의 생활상에 미친 일본문물」, 『인문논총』 5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1998a; 김성진, 「부산 인근지역의 생활에 미친 부산왜관의 영향」, 『동양한문학연구』 12, 동양한문학회, 1998b.

10) 변광석, 「조선 후기 김해 가락지방의 교통과 상품 유통의 발달」, 김해민속예술보존회, 『김해 가락오광대』, 박이정, 2004.

## 2. 포구 유통권의 실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상택지, 팔역명기, 팔역통론, 경상도)에서는 「낙동강은 김해로 들어가 경상도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흐른다. 두 갈래 강물은 다시 김해에서 크게 합쳐지면서 70개 고을이 하나의 水口를 함께 공유하면서 큰 형국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낙동강 하구에 자리잡은 김해는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강운과 해운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중환의 『택리지』(팔도총론, 경상도)에서는 「상주는 북쪽으로 조령과 가까워서 충청도·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 낙동강에 임해서 김해·동래와 통한다. 운반하는 말과 짐 실은 배가 남쪽과 북쪽에서 물길과 육로로 모여든다. 이것이 무역하기에 편리한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김해는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여 상류에 위치한 상주까지 물류를 유통하고 있었다.

『택리지』(북거총론, 생리), 『임원경제지』(상택지, 점기, 생리)에서는 「舟商[船商]이 출입할 때는 반드시 강과 바다가 서로 만나는 곳에서 이익을 얻고 물품을 사고 판다. 경상도에는 낙동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 김해 칠성포가 있다. 북쪽으로 상주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서쪽으로 진주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김해에서만 배가 드나드는 입구를 관할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국에서 「춘천 우두촌, 원주 원흥창, 충주 금천, 한양 동강과 서강, 은진 강경진, 김해 칠성포」 등을 손꼽았다. 김해 칠성포는 경상도 전체 물길의 입구에 위치하여 내륙과 바다의 이익을 전부 차지한다고 하였다.<sup>11)</sup> 특히 서울의 경강, 은진의 강경진, 김해의 칠성포 3곳이 국내에서 으뜸이라고 하였다.<sup>12)</sup> 상품유통의 중심포구로 경상도는 낙동강 하구의 七星浦, 전라도는 나주의 槩山江, 영광의 法聖浦, 흥덕의 沙津浦, 전주의 沙灘, 충청도는 은진의 강경포를 들 수 있다. 특히 대포구로 발전한 포구는 칠성포, 강경포, 원산포였다<sup>13)</sup>

11) 이중환 저,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5판, 1990, 170~175쪽;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상택지』, 풍석문화재단, 2019, 144~152쪽.

12) 서유구, 앞의 책, 151~152쪽.

13) 고동환, 앞의 논문, 1993, 320쪽.

낙동강과 남해안을 끼고 있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김해 지역에는 곳곳에 낙동강 지류와 작은 섬들이 있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많은 포구와 나루가 존재하였다. 지리지·읍지류를 통해 조선시대 김해 지역의 포구와 나루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김해지역의 포구와 나루(津)

| 이름            | 위치    | 경상도 지리지 (1425) | 경상도 속찬 지리지 (1469) | 신증 동국여지승람 (1530) | 분성 여지승람 신증초 (18세기 전반) | 여지도서 (1760년경) | 김해 부읍지 (1786년경)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 김해 부읍지 (1832년경) | 김해 읍지 (『영남 읍지』, 1895년경) |
|---------------|-------|----------------|-------------------|------------------|-----------------------|---------------|--------------------------------|-----------------|-------------------------|
| 磊津 (海陽江, 海陽津) | 북40   | ○              | ○                 | ○                | ○ 북48                 | ○ 북48         | ○                              | ○               | ○                       |
| 注津            | 부북    |                | ○                 |                  |                       |               |                                |                 |                         |
| 黃山津           | 동40   |                | ○                 | ○ 황산강            | ○ 황산강                 | ○ 황산강         | ○ 황산강                          | ○ 황산강           | ○ 황산강                   |
| 德津橋           | 서10   |                | ○                 | ○덕진 교포           | ○덕진 교포                | ○덕진 교포        | ○덕교 포                          | ○덕교 포           | ○덕진 교포                  |
| 都要渚           | 동북40  |                |                   | ○                | ○ 동북30                | ○ 남40         | ○                              | ○               | ○                       |
| 主浦            | 남40   |                |                   | ○                | ○                     | ○             | ○                              | ○               | ○                       |
| 江倉浦           | 남6    |                |                   | ○                | ○                     | ○             |                                |                 | ○                       |
| 防浦            | 서5    |                |                   | ○                | ○                     | ○             |                                |                 | ○                       |
| 佛巖津           | 동10   |                |                   | ○                | ○                     | ○             | ○                              | ○               | ○                       |
| 東院津 (月堂津)     | 동40   |                |                   | ○                | ○                     | ○             |                                |                 | ○                       |
| 大山津           | 북50   |                |                   | ○ 태산진            | ○                     | ○ 동50         | ○                              | ○               | ○                       |
| 花成浦           | 북30   |                |                   |                  | ○                     |               |                                |                 | ○                       |
| 蒜山津           | 동30   |                |                   |                  | ○                     |               |                                |                 | ○                       |
| 柳等渚津          | 대산진 밑 |                |                   |                  | ○                     |               |                                |                 | ○                       |
| 三浪津           | 북40   |                |                   |                  | ○                     |               |                                |                 | ○                       |
| 浦項津           | 동40   |                |                   |                  | ○                     |               |                                |                 | ○                       |
| 鼠津            | 북40   |                |                   |                  |                       |               | ○                              | ○               |                         |
| 慎翁浦           | 서15   |                |                   |                  |                       |               |                                |                 | ○                       |

\* 위치는 『김해읍지』(1895년경)에 따름. 대산진과 注津은 『경상도속찬지리지』, 鼠津은 『김해부읍지』(1832년경)에 따름.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자료에 따라 포구와 나루 수에서 큰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자료 기재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전반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성여지승람신증초』(김해박물관 소장)과 1895년경에 편찬된 『김해읍지』(『영남읍지』 수록)가 가장 비슷하다. 특히 조선전기보다는 조선후기에 숫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인다. 이것은 기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그 만큼 수산물 생산의 증가와 그에 따른 유통의 발달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칠성포는 〈표 1〉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칠성포의 위치를 비정하기는 무척 어렵다. 申益愷(1672~1722)이 지은 「七點山」이란 시에는 ‘산은 일곱 점 별 모양으로 벌여 섰고, 물은 셋으로 갈려 글자 획과 같구나」<sup>14)</sup>란 구절이 있다. 七星浦란 이름은 ‘일곱 점 별」[七點星, 七星] 모양을 한 칠점산과 관련이 있는 듯하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19세기 작성된 ‘金海府內地圖’를 보면, 낙동강이 남해로 들어가는 하류에서 세 갈래로 나누어진 三叉江과 칠점산이 함께 그려져 있다.<sup>15)</sup> 삼차강은 삼차수, 삼분수 등으로도 불렸다. 칠점산은 삼차수가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 하구 大渚島에 있던 산이다.<sup>16)</sup> 칠성포가 읍지 등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김해 지역의 포구나 나루는 〈표 1〉보다 더 많았으며, 시기에 따른 변화도 있었다고 본다.<sup>17)</sup>

포구 유통권의 상품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은 배다. 선상의 활동은 운송을 하는 경우와 매매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양자의 경우도 선주가 직접하는 경우와 배를 빌려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선상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표인영래등록』, 『동문회고』, 『변례집요』, 『전객사일기』 등의 표류 기사를 들 수 있다.<sup>18)</sup> 이들 자료를 토대로

14) 신익항, 『克齋集』 권1, 시, 칠점산. “山排七點星形列 水作三叉字畫同”

15)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2018, 192쪽 참조.

16) 조해훈, 「한시에 나타난 선계로서의 칠점산」, 『석당논총』 57,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3, 166~173쪽.

17) 민궁기, 『김해의 지명』, 김해문화원, 2005, 531쪽에서는 注津과 鼠津은 같은 곳으로서, 주진에서 서진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포구나 나루에 대해서는 이 책 제5장(김해지역의 개·나루이름) 참조.

김해 관련 몇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사례 1〉 1677년(숙종 3) 3월 20일 당시 김해에 사는 사공 李鐵伊(42세), 격군(결꾼, 水夫) 梁好白(37세), 德民(41세), 양산인 私奴 丑生(36세), 격군 강화인 사노 末叱男(42세)의 5명과 이름을 모르는 미성년 2명 등 7명은 ‘傭船爲業’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들은 1676년 9월 25일 부산에 사는 ‘金納上’이라 부르는 사람에게서, 正木(무명) 5필을 받은 후에, 그의 맥미(보리·쌀)와 집 材木을 김해에서 부산으로 운반한 후, 다시 소금을 운반하는 일이 있어 기장으로 가다가 1676년 10월 2일 표류하였다.<sup>19)</sup> 김해 사람인 사공 이철이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사공을 돕는 결꾼이었다. 결꾼은 양산, 강화 사람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쌀·보리·목재·소금 등 생필품을 김해에서 부산, 기장으로 운반하였다. 이들은 선주에게 배삯을 주고 배를 빌려서 운송업을 하는 ‘용선업자’라는 점이 주목된다. 정목 5필은 김해에서 부산까지 운반한 운송료다.<sup>20)</sup>

〈사례 2〉 1670년(현종 11)에 김해 남면에 사는 金希如山 등 8명은 鮓魚(멸치)를 사기 위해서 울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표류하였다.<sup>21)</sup> 선상 김희여산 등의 원래 목적은 울산에 가서 멸치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김해에서 울산까지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례 3〉 1751년(영조 27) 11월 하순, 김해에 사는 李珪伊 등 8명이 청어를 사서 팔기 위해[靑魚貿得興販次] 부산에 갔으나, 조달이 어려워져 12월 하순에 다시 장기로 가려고 부산을 출발했다가 표류하였다.<sup>22)</sup>

18) 이들 자료를 이용한 대표적 연구로 고동환, 앞의 논문, 1993; 고동환, 앞의 논문, 2003을 들 수 있다.

19) 『표인영래등록』 정사(숙종 3, 1677) 3월 27일(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2, 1993, 25~34쪽).

20) 고동환, 앞의 논문, 1993, 300~301쪽.

21) 『표인영래등록』 신해(현종 12, 1671) 1월 15일(영인본 1, 507~510쪽).

22) 『변례집요』 권3, 漂人, 임신(영조 28, 1752) 10월; 池內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부록 51쪽.

〈사례 4〉 김해 죽도에 사는 사공 金元雄 등 7명은 동전 55냥·목화 60근·백목(목면) 1필 20자·쌀 4석·소금 1석을 균역청에 등록된 申名壁의 배에 싣고, 1758년 9월 18일 죽도를 출발하여 강원도 평해로 향하였다. 9월 26일 장기 앞바다에서 표류하였다. 이들은 모두 죽도에 사는 사람으로 ‘商販爲業’ 즉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선상이었다.<sup>23)</sup> 김원웅 등 7명의 인적 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1758년 김해부 죽도에 사는 船商 김원웅 등 7명의 인적 사항

| 역할     | 이름  | 신분 | 나이 | 자금                                          |
|--------|-----|----|----|---------------------------------------------|
| 사공     | 金元雄 | 양인 | 22 | 동전 55냥+목화 60근+<br>백목 1필 20자+ 쌀 4석+<br>소금 1석 |
| 격군(결꾼) | 姜儉金 | 양인 | 47 |                                             |
|        | 裴善貴 | 양인 | 38 |                                             |
|        | 金良才 | 양인 | 50 |                                             |
|        | 李今才 | 양인 | 37 |                                             |
|        | 姜夫才 | 양인 | 30 |                                             |
|        | 金巖山 | 양인 | 19 |                                             |

죽도는 김해 읍치에서 남쪽 10리에 있는 섬이다. 이들은 배를 소유한 선주겸 선상은 아니고, 남의 배를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동전·목화·백목(목면)·쌀·소금 등 다양한 물품을 자금으로 하여, ‘興販’, ‘賣貨物’, 즉 장사를 목적으로 강원도 평해로 갔다. 사려고 한 물품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평해로 간 것으로 보아 어물일 가능성이 크다. 자금은 따로 물주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사례 5〉 1713년(숙종 39) 9월 2일, 김해 남면 凡同浦에 사는 사공인 양인 金次立(또는 이차립), 결꾼인 양인 鄭石, 李元, 李加叱同, 崔梧乙未 등 5명은 皮籩(겉보리) 22석을 본전으로 삼아, 어물을 사기 위해 범동포를 출발하

23) 『전객사일기』 기묘(영조 35, 1759) 10월 9일.



여 강원도 간성으로 갔다. 하지만 魚族이 없어서 다시 본전(겉보리)을 싣고 10월 12일 김해로 방향을 돌려 오다가, 10월 19일에 장기 구영포 앞바다에서 표류하였다.<sup>24)</sup>

〈표 1〉을 보면 범동포는 없다. 범동포는 조만강에 있는 凡登浦를 가리키는 것 같다. 범동포에 사는 이들이 멀리 강원도 간성(현 고성군 간성읍)까지 간 것이다. 김해를 출발하여 고성까지 갔다가, 고성을 다시 출발하기까지 40일이 걸렸다. 포구 유통권은 멀리 강원도까지 형성되어 있었다. 〈사례 4〉, 〈사례 5〉에서는 선주는 따로 있고, 사공과 격군이 선주의 배를 빌려서 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례 6〉 양산에 사는 出身 姜以望과 사공 私奴 有落, 한량 金廷漢, 사노 漢生, 黃金, 김여인, 박召史(조이), 윤소사(조이), 私婢 未叱梅, 김해에 사는 應連, 應立, 承鶴, 沙器匠 尹愛男, 수군 褻斗業 등 15명은 각각 租石을 가지고, 1673년(현종 14) 9월 6일 거제로 갔다가, 9월 19일 돌아올 때 옥포 앞바다에서 표류하였다. 당시 배 안에 실은 물품은 합계 租 11石零. 목화 500여 근이었다. 절반 정도는 침몰되고 남은 것은 조 7석과 목화 200여근이었다.<sup>25)</sup> 이들은 양산 남면의 商船 1척에 타고 갔다. 선주는 양산 사람 강이망이다.

고동환은 선주 강이망이 자신 소유 상품을 사공·격군에게 雇價로 주고,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1명의 주도적 선상과 종속적인 영세 소상공인이 결합한 船業으로 보았다.<sup>26)</sup> 그런데 15명은 ‘각각 租石을 가지고’ 함께 배에 탔다고 하였다. ‘租石’이 고가로 받은 것인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租石’의 성격에 따라 선상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양산·김해 사람으로 15명은 거제도에 목화를 사러 갔다. 그들이 목화 500여근을 사고 남은 租가 11석 정도다. 따라서 목화 값으로 지불한 租는 훨씬 많았다. 배에는 적어도 4명이

24) 『표인영래등록』 갑오(숙종 40, 1714) 4월 19일, 20일(영인본 5, 4~20쪽).

25) 『표인영래등록』 계축(현종 14, 1673) 12월 11일, 12일, 14일, 15일(영인본 1, 523~536쪽).

26) 고동환, 앞의 논문, 1993, 296쪽.

상의 여성이 됐다. 양산·김해에서 거제도는 멀지 않은 거리다. 양산·김해 선상들은 낙동강 강운을 이용하여租를 싣고 거제도로 갔던 것이다.

〈사례 7〉 선주 양인 朴分先, 사공 양인 孫古男을 비롯한 7명은 모두 김해부 칠산면 마찰리에 사는 어민이다. 이들은 興利(상업)를 목적으로, 선주 자신의 본전 208냥과 糧米 2석을 자신의 배에 싣고, 1781년(정조 5) 10월 5일 김해를 출발하였다. 10월 7일 울산 방어진에 도착하여, 멸치 15석과 말린 잡어 30동을 샀다. 구입한 어물과 남은 돈 30냥 2전을 배에 싣고 10월 13일 울산을 출발하여 김해로 돌아오다 표류하였다.<sup>27)</sup> 박분선 등 7명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781년 김해부 칠산면 마찰리에 사는 船商 박분선 등 7명의 인적 사항

| 역할      | 이름   | 신분 | 나이 | 자금            |
|---------|------|----|----|---------------|
| 선주 겸 물주 | 朴分先  | 양인 | 48 | 동전 208냥+糧米 2석 |
| 사공      | 孫古男  | 양인 | 34 |               |
| 격군(결꾼)  | 朴苐叱福 | 양인 | 40 |               |
|         | 金雪隱金 | 양인 | 35 |               |
|         | 金麻唐  | 양인 | 36 |               |
|         | 金以輝  | 양인 | 20 |               |
|         | 金分三  | 양인 | 19 |               |

이들은 모두 원래 어민이었다. 박분선은 선주이면서 물주였다. 사공 1명에 격군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금은 동전 208냥과 쌀 2석이였다. 신분은 모두 양인이다. 사공과 결꾼은 19~40세의 청장년이다. 선상 활동의 목적은 ‘興利’ 즉 장사였다. 울산에 가서 멸치와 건어물을 사기 위해서다.

영·호남 해안을 항해하다 표류한 162건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승선인원 6~15명이 전체의 63%를 차지하였다.<sup>28)</sup> 김해 지역의 일곱 사례도

27) 『전객사일기』 임인(정조 6, 1782) 3월 6일.

28) 고동환, 앞의 논문, 2003, 313쪽.

비슷한 양상이다. 배를 가지고 상업 활동을 하는 자는 물주(錢主), 선주(배), 사공, 격군(결꾼)으로 구성된다. 船商이라 일컫는 자는 물주와 선주지만, 사공과 결꾼도 소규모 상업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 경우에도 물주와 선주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sup>29)</sup> 김해 지역 선상의 활동도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김해 지역 선상의 경우, 부산, 기장, 거제, 울산 등 경상도 지역은 물론 간성, 평해 등 강원도 지역까지 가서 활동하는 포구 유통권을 형성하고 있었다.<sup>30)</sup>

위에서 본 일곱 사례는 김해 지역의 선상 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다른 지역 선상들이 김해에 와서 활동한 것은 검토하지 못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695년(숙종 21)에 전라도 흥양현(현 고흥군) 대서면 남당리에 사는 私奴 孫雪良 등 23명은 훈련도감 屯募軍인데 흥년을 맞아 살길이 막막하자, 車起生의 배를 빌린 후 각각 낸 돈 200냥과 軍木 1통을 밑천으로, 김해에 가서 租 100석을 산 후 그것으로 魚藿을 사기 위해 울산 서생포로 갔다. 하지만 魚藿이 부실하여 팔지 못하고 1696년 1월 2일 흥양으로 돌아오려다가 표류하였다.<sup>31)</sup> 17세기 말의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전라도 지역 선상이 김해·울산에 와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좀더 많은 사례를 발굴·분석하면, 해운을 통한 김해 지역의 유통권은 전라도·서해안까지 확대될 것이다.

### 3. 장시 유통권의 실태

1770년(영조 46)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와 신경준의 『도로고』에는 1,000여 개나 되는 전국 단위의 장시가 최초로 망라되어 수록되었다. 신경준은 『도로고』 서문에서, 당시 실제로 열리고 있는 장시를 수록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로고』, 『동국문헌비고』 및 현존 하는 각종 김해읍지[김해부읍지, 김해부지] 등에 수록되어 있는 18~19세기 장시를 정리하면 <표

29) 고동환, 앞의 논문, 1993, 291~292쪽.

30) 고동환, 앞의 책, 171~172쪽.

31) 『표인영래등록』 병자(숙종 22, 1696) 6월 19일(영인본 3, 30~33쪽).

4)와 같다. <표 4>에서 장시 이름과 장날은 『동국문헌비고』를, 장시의 위치는 『임원경제지』를 근거로 정리하면서, 읍지 등도 참고하였다. 해당 자료에 수록된 장시는 ‘○’ 표시를 하였다.

<표 4> 18~19세기 김해 지역의 장시

| 장시   | 邑內場                       | 新文場                | 雪倉場                     | 省法場              | 盤松場                | 館場                 | 鳴湖場  | 장시수 | 비고                                 |
|------|---------------------------|--------------------|-------------------------|------------------|--------------------|--------------------|------|-----|------------------------------------|
| 장날   | 2·7                       | 3·8                | 4·9                     | 5·10             | 5·10               | 5·10               | 5·10 |     | 『동국문헌비고』에 따름.                      |
| 장 위치 | (부내)                      | 부 서쪽<br>20리<br>유하면 | 부 북쪽<br>30리<br>중북면      |                  | 부 남쪽<br>30리<br>토야면 | 부 서쪽<br>30리<br>울리면 |      |     | 『임원경제지』에 따름. 단 읍내장은 읍지에 따름.        |
| ①    | 도로고<br>(1770)             | ○                  | ○                       | ○                | ○                  |                    |      | 5   | 신경준 지음                             |
| ②    | 동국문헌비고<br>(1770)          | ○                  | ○                       | ○                | ○                  |                    |      | 5   |                                    |
| ③    | 잡동산이<br>(1778~<br>1791년경) | ○                  | ○                       | ○                | ○                  |                    |      |     | 안정복 지음                             |
| ④    | 임원경제지<br>(1830년대)         | ○<br>府內場           | ○                       |                  | ○                  | ○                  |      | 5   | 서유구 지음                             |
| ⑤    | 김해부읍지<br>(1832년경)         | ○<br>읍장            | ○<br>新門<br>부 서쪽<br>20리  |                  | ○<br>부 서쪽<br>40리   | ○<br>부 남쪽<br>40리   |      | 4   | 『경상도읍지』 수록. 장날 표기 없음.              |
| ⑥    | 여도비지<br>(1850년대)          | ○                  | ○                       | ○                | ○                  |                    |      |     | 김정호 지음                             |
| ⑦    | 영지요선<br>(1876)            | ○<br>邑市            | ○<br>柳下新門               | ○                |                    |                    | ○    | 4   |                                    |
| ⑧    | 김해읍지<br>(1895년경)          | ○<br>읍장<br>부내      | ○<br>新門<br>부 서남쪽<br>20리 | ○<br>부 북쪽<br>30리 | ○<br>부 서쪽<br>30리   | ○<br>부 남쪽<br>40리   |      | 5   | 『영남읍지』 수록. 장날 표기 없음.               |
| ⑨    | 김해읍지<br>(1899년)           | ○<br>읍장<br>부내      | ○<br>新門<br>부 서남쪽<br>30리 | ○<br>부 북쪽<br>30리 | ○<br>부 서쪽<br>30리   | ○<br>부 남쪽<br>40리   |      | 5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0878). 장날 표기 없음. |

〈표 4〉를 보면 18~19세기 김해 지역의 장시는 4개나 5개다.<sup>32)</sup> 군현 당 평균 장시수는 군현의 규모와 대체로 비례한다. 『영남청사략』(19세기 전반)에서는 토지 結數에 따라 고을 규모를 4등급으로 나누고 있다.<sup>33)</sup> 김해는 4,000~6,000결의 증읍에 속한다. 경상도 71개 고을 가운데서 김해보다 토지가 많은 6,000결 이상의 대응은 모두 8곳이다. 군현의 등급과 토지의 등급 사이에는 약간의 편차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도로고』나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대응인 8읍에는 81개 장시가 있어서 평균 10개다. 그리고 증읍에는 5개, 소읍에는 3개, 잔읍에는 2.5개다. 군현의 규모가 클수록 장시수도 많다.<sup>34)</sup> 증읍인 김해는 장시가 5개라서, 경상도 지역의 평균치와 일치한다.

〈표 1〉을 보면, 자료에 따라 숫자나 장시 이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자료에 등장하는 읍내장(2·7), 신문장(3·8), 설창장(4·9), 생법장(5·10),<sup>35)</sup> 반송장(5·10)의 5개 장시가 19세기 말까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한 자료에서는 1·6일장은 없다. 4곳만 수록된 『영지요선』만 장날이 중복되지 않고, 나머지 자료는 4곳이든 5곳이든 모두 5·10일장이 2곳으로 중복된다.

장날이 중복되는 5·10일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5·10일장 가운데 명호장은 『영지요선』(1876), 관장은 『임원경제지』에

32) 변광석, 앞의 논문, 2004. 205쪽에서는 19세기 당시 장시수를 6개로 보았다.

33) 〈표 5〉 田結을 기준으로 한 경상도 71개 군현의 등급

| 분류 | 기준        | 군현 수 | 군현                                                                                  |
|----|-----------|------|-------------------------------------------------------------------------------------|
| 대읍 | 6,000결 이상 | 8    | 밀양 안동 진주 상주 성주 경주 선산 대구                                                             |
| 중읍 | 4,000결 이상 | 7    | 창녕 영천 예천 울산 김해 고성 의성                                                                |
| 소읍 | 2,000결 이상 | 28   | 양산 현풍 영산 영천 청도 의흥 경산 용궁 풍기 신녕 칠곡 인동 동래 창원 하동 사천 곤양 의령 함안 함창 삼가 함양 개령 김산 거창 초계 합천 고령 |
| 잔읍 | 1,000결 이상 | 28   | 언양 자인 비안 연일 흥해 하양 군위 순흥 영해 청송 영덕 봉화 예안 영양 진보 기장 장기 청하 남해 단성 칠원 거제 진해 웅천 안의 산청 문경 지례 |

34) 한상권, 앞의 논문, 199쪽.

35) 민궁기, 앞의 책, 258쪽에서는 「생법역 객관 부근에 관동마을[관장 터]이 형성되었으며, 이곳에 생법장이 위치했다」라고 하였다. 省法場·省法驛은 생법장·생법역 또는 성법장·성법역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민궁기의 견해에 따라, 생법장·생법역으로 통일하였다.

만 수록되어 있다. 5·10일장이 중복되는 것은 생법장과 반송장, 관장과 반송장 두 경우이다. 첫째, 생법장과 반송장 경우를 보면, 전자는 읍내에서 서쪽 30리나 40리에, 후자는 남쪽 30리나 40리에 위치한다. 두 장시는 장날은 중복되지만,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날이 중복되어도 이용하는 상인이나 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관장과 반송장 경우를 보면, 관장의 위치는 읍내에서 서쪽 30리이므로, 생법장과 같은 위치이거나 10리 떨어진 곳이다.<sup>36)</sup> 그런데 『임원경제지』를 보면 관장만 있고, 생법장은 없다. 생법장과 관장은 별개 장시가 아니라, 시기를 달리하면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생각한다.<sup>37)</sup>

조선후기에 1,000여 개나 존재했던 장시는 대체로 한 군현 안에서 4~5개가 장날을 달리하여 열리면서, 한 군현 안에서 상품 거래가 늘 이루어지는 시장권이 형성되었다. 시장권은 대체로 읍치나 교통의 요지에 개설된 장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시장권의 형성은 장시를 순회하는 상인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물품 유통의 활성화를 가져왔다.<sup>38)</sup>

『여지도서』(1750·60년대)에 수록되어 있는 「김해부지도」를 보면, 읍내에서 창원쪽과 웅천쪽으로 가는 갈림길의 길목에 省法館이 있다. 생법장은 이 객관 주변에서 개설되었다. 그리고 읍내에서 창원 방면으로 가는 북서쪽 길의 중복면에 雪倉이 있다. 설창은 부의 북쪽 30리 중복촌에 있으며, 1666년(현종 7)에 세워진 창고다.<sup>39)</sup> 이 설창 주변에 개설된 장시가 설창장이다. 김해 지역의 장시는 읍내장을 중심으로 남, 서, 북쪽의 20~40리 정도 떨어진 곳에 개설되었다. 생법장이나 설창장처럼, 역원 등 교통의 요지나 창고 등 물류 집합의 요지에 장이 섰다.

『여지도서』 「역원」조에 수록된 18세기 후반 당시의 김해 지역 역원을

36) 변광석, 앞의 논문, 1999, 217쪽 (지도 6)에서는, 관장 위치를 읍치 동쪽에 있는 덕산관 부근으로 비정하고 있다.

37) 민궁기, 앞의 책, 258쪽 참조.

38) 김대길, 「장시의 성립과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편, 『장시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두산동아, 2007, 26~28쪽; 김대길, 앞의 책, 91쪽.

39) 『분성여지승람신증초』: 『김해읍지』 공해(『영남읍지』 1895년경,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2, 644쪽).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비교는 『여지도서』와 비교하기 위해서 『경상도읍지』(1832년경)에 수록된 『김해부읍지』 「역원」조를 정리한 것이다. 양자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명칭에서 역/원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다.

<표 6> 조선후기 김해 지역의 驛院

|             | 동                   | 서                  | 남                   | 북                 | 대마 | 중마 | 卜馬 | 역리  | 노비         | 비고          |
|-------------|---------------------|--------------------|---------------------|-------------------|----|----|----|-----|------------|-------------|
| 남역<br>동5    | 덕산역 30              | 생법역 30             | 적항역 30              | 금곡역 30            | 2  | 2  | 8  | 45  |            | 남역원<br>동5   |
| 덕산역원<br>동37 | <b>양산</b><br>황산역 15 | 남역30               | <b>동래</b><br>소산역 30 | 금곡역 60            | 1  | 2  | 8  | 200 | 노5<br>(도망) | 덕산<br>역원동37 |
| 금곡역<br>북35  | 남역40                | 대산역50              | 생법역40               | <b>밀양</b><br>흘역20 | 1  | 2  | 7  | 39  | 노12        | 금곡역원<br>북35 |
| 생법역원<br>서28 | 남역30                | <b>창원</b><br>자여역15 | 적항역20               | 대산역45             | 2  | 2  | 8  | 53  |            | 생법역원<br>서28 |
| 적항역원<br>남30 | 남역30                | 창원<br>안민역30        | <b>웅천보평</b><br>역30  | 생법역20             | 1  | 2  | 5  | 20  | 노9<br>비2   | 적항역<br>남30  |
| 대산역<br>북50  | 금곡역50               | <b>칠원</b><br>창인역50 | 창원<br>여역20          | 밀양<br>양동역10       | 2  | 2  | 10 | 55  | 노5<br>비5   | 대산역원<br>북50 |

( )는 여지도서 내용. 방향은 읍지 기준. 단위는 거리 리, 말 필, 사람 인.

<표 6>을 보면, 조선후기 김해 지역의 역원은 모두 6곳이다. 읍내를 중심으로 동쪽 2곳, 서쪽 1곳, 남쪽 1곳, 북쪽 2곳 모두 6곳이다. 『여지도서』와 『경상도읍지』(『영남읍지』 수록)는 역명이나 「역+원」의 유무에서 약간 차이를 보인다. 두 자료를 절충하면 모두 「역+원」이다. 따라서 역이 원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역원에는 驛馬, 驛吏, 驛奴(婢)가 있었다. 냉정역원은 생법역으로 移設되었다고 한다.<sup>40)</sup> 6곳 역원은 김해 지역 내에 있는 역은 물론, 인접한 양산, 동래, 밀양, 창원, 칠원, 웅천 지역 역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생법장은 생법역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역원과 역원을 연결하는 역로는 역로 원래의 기능은 물론, 상인이나 민이 상업 활동을 하

40) 『여지도서』 역원(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9, 566~567쪽); 『경상도읍지』 역원(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2, 469쪽).

는 교역로 기능을 하였다.

〈표 4〉를 보면, 김해에는 1·6일장이 없다. 군현의 장시는 군현 자체로서 완결적인 5일장 체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인접한 군현의 장시와도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김해와 그 인근 지역의 장시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김해와 그 인근 지역의 5일장 체계

| 군현                                                            | 1·6            | 2·7                        | 3·8                     | 4·9                              | 5·10           |
|---------------------------------------------------------------|----------------|----------------------------|-------------------------|----------------------------------|----------------|
| 김해                                                            |                | 읍내/부내                      | 신문/신문                   | 설창/설창                            | 생법/관장<br>반송/반송 |
| 양산                                                            | 읍내/읍내          |                            | 감동/감동<br>용당/×           | ×/용당                             | 황산/황산          |
| 동래                                                            | 독지/×           | 읍내/부내                      |                         | 부산/부산                            | 수영/하단          |
| 밀양                                                            | 삼랑/삼랑<br>수안/수안 | 읍내/부내                      | 팔풍/팔풍<br>수산/수산          | ×/금곡                             | 성외/성외          |
| 창원                                                            | 자여/자여<br>×/안민  | 읍내/부내                      |                         | 신촌/신천<br>×/완암                    | 마산/마산          |
| 칠원                                                            |                | 우포/상포(7일만)                 | 읍내/성내(3일만)<br>· 성외(8일만) |                                  |                |
| 웅천                                                            | 고음포/×          | 부신당/원리                     | 풍덕포/풍덕리                 | 읍내/읍내                            |                |
| 진해                                                            | ×/상령리          | 고현(7일만)/내포리<br>창포(2일만)/창포리 |                         | 읍내(9일만)/<br>읍내(4·9)<br>장기(4일만)/× |                |
| 함안                                                            | 평림/평림          |                            | 방목/방목                   | 궁북/군북                            | ×/이정           |
| 출전: 신경준, 『도로고』; 서유구, 『임원경제지』. ‘/’ 앞 『도로고』, 뒤 『임원경제지』. ×는 없는 것 |                |                            |                         |                                  |                |

〈표 7〉에서 『도로고』와 『임원경제지』를 보면, 장시의 이름이나 장날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김해와 양산을 비교하면, 김해 지역은 1·6일에 양산 읍내장을 이용할 수 있다. 양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7일에 김해 읍내장, 4·9일에는 김해 설창장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표 6〉을 보면, 김해 생법역과 창원 자여역은 15리 거리에 있다. 김해 생법장은 5·10일장, 창원 자여장은 1·6일장이다. 김해에는 1·6일장이 없으므로, 생법장이 열린 다음날 창원 자여장과 시장권을 형성할 수 있다.



『부역실총』 각 군현의 「本官捧用秩」에는 場稅(장시세)가 기재되어 있다. 김해와 그 인근 지역의 장세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부역실총』을 통해서 본 김해와 그 인근 지역의 場稅

| 지역                           | 김해            | 양산           | 창원                            | 밀양   | 칠원  | 웅천  | 진해  | 함안         |
|------------------------------|---------------|--------------|-------------------------------|------|-----|-----|-----|------------|
| 장세                           | 288냥<br>7전 2푼 | 66냥<br>2전 4푼 | 288냥.<br>목화 38근.<br>소금 4석 12승 | 285냥 | 36냥 | 61냥 | 60냥 | 122냥<br>4전 |
| 용도                           | 各項<br>公用      | 軍備<br>修補     |                               |      |     |     |     |            |
| 비고<br>장시수                    | 5/5           | 4/4          | 4/6                           | 6/6  | 2/2 | 4/3 | 4/4 | 3/4        |
| 전자는 『도로고』, 후자는 『임원경제지』의 숫자임. |               |              |                               |      |     |     |     |            |

<표 8>을 보면 김해 지역의 장세는 288냥 7전 2푼이다. 김해부 각종 공용에 쓴다고 한다.<sup>41)</sup> 이 액수는 연간 액수다. 창원이 가장 많고, 다음이 김해다. 동전의 경우는 3곳이 285~288냥으로 비슷하다. 창원은 동전 외에 목화와 소금으로도 징수하였다. 김해와 밀양은 더욱 비슷하다. 나머지 다른 지역의 최저 2배, 최고 8배이다. 『부역실총』은 18세기 말~19세기 초에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에서는 목화와 소금의 현물납이 병행되고 있지만, 김해와 양산 등 다른 지역은 이미 화폐납으로 일원화되고 있었다. 『호구총수』(1789)를 보면, 경상도 71군현 가운데 김해는 인구가 11번째다. 다음인 밀양(<표 5> 참조)은 인구도 6번째이지만 장세는 김해보다 조금 적다. 마찬가지로 다음인 진주는 인구가 3번째이지만, 장세(71냥 4전 4푼)는 김해의 4분의 1 수준이다. 김해 장세는 다음이면서 인구도 많은 밀양·진주보다 많다. 이것은 토지·인구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업이 발달하여 장세가 많이 징수된 것을 뜻한다.

장세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징수되었다. 그래서 장세 내역과 징수 방법이 다양하였다. 장세 징수는 월·계절·분기별로 사정이 달랐다. 비가 올

41) 『부역실총』 경상도, 김해(여강출판사 영인본, 1984, 하-503쪽).

때나 사정으로 장이 서지 않을 때는 대개 장세를 감해 주었다. 장세는 매달마다 일률적인 장세를 징수하는 곳도 있지만, 같은 군현 안에서도 장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기도 하였다.<sup>42)</sup> 장세는 각종 공용이나 군비 보충 등 군현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다. 『김해읍지』(1895년 경)에서는 「毘場(읍내장)과 雪倉場의 장세는 매달 보리든 벼든 간에 12石씩 환곡값으로 代錢하여 받되, 장날 비가 오면 사정을 헤아려 減稅한다」<sup>43)</sup>라고 하였다. 비가 오는 날에는 그만큼 감세해 주었다. 1895년 당시 김해에는 읍장, 신문장, 설창장, 생법장, 반송장 5개 장시가 존재했지만, 장세가 언급된 것은 2개뿐이다. 나머지 3개 장시에 대한 장세 징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개 장시만 언급된 것은 김해 장시 안에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주요 유통 물품의 특징

〈표 4〉의 김해 지역 장시 관련 자료에서 물품이 기재된 것은 『임원경제지』뿐이다. 『임원경제지』(예규지, 화식, 팔역장시)를 보면, 군현별로 장시를 정리하고, 특정한 장시에 풍부한 물품을 기록하고 있다. 장시는 1달에 6번 열리는 5일장이 대세이지만, 3번 열리는 10일장, 2번 열리는 15일장, 1번 열리는 30일장, 11~12번 열리는 2일~3일장도 있다. 물품이 기록된 장시는 대개는 읍내장(부내, 주내, 성내, 군내, 현내장 등)이지만, 읍내장이 아닌 경우도 있다. 대개는 군현별로 1개 장시가 일반적이지만, 2개 장시인 경우도 있다. 물품을 기록하지 않은 군현도 있다. 각 도별로 군현수, 장시수, 물품이 적힌 장시수를 개관하면 〈표 9〉와 같다. 기존의 연구와 장시수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 새로 정리하였다. 한 군현 안에서 대장/소장, 상장/하장, 상장/중장/하장, 동부장/서부장, 4리장/5리장, 상리장/하리장, 관전장/관후장 등으로

42) 김대길, 앞의 책, 209~217쪽; 배은아, 「19세기 말 상업세의 징수와 성격-경상도 함안의 장세 징수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2, 이화여자대 이화사학연구소, 2002, 187~188쪽.

43) 『김해읍지』(『읍지』 2, 경상도②,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2, 675쪽); 김대길, 앞의 책, 216쪽.

나누어진 장시의 경우에는 물품이 각각 기록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장시수를 1곳으로 계산하였다. 단, 경기도 수원 부내장처럼, 장이 2곳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併[모두]’이라고 표기된 장시는 2곳으로 계산하였다.

〈표 9〉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전국 장시와 유통 물품이 기재된 장시의 수

| 도명 | 군현수 | 장시수   |         |         |         | 물품 기록 장시수 | 2곳 기록된 군현                                                                               |
|----|-----|-------|---------|---------|---------|-----------|-----------------------------------------------------------------------------------------|
|    |     | ㉠     | ㉡       | ㉢       | ㉣       |           |                                                                                         |
| 경기 | 34  | 92    | ㉠<br>93 | ㉡<br>92 | ㉢<br>92 | 35        | 수원(부내장, 부내장)                                                                            |
| 충청 | 53  | 157   | 158     | 157     | 158     | 59        | 공주(읍내장, 경천장) 충주(서문외장, 내창장)<br>청주(읍내장, 조치원장) 홍주(읍내장, 예전장)<br>아산(읍내장, 곡교장), 서산(성외장, 방길리장) |
| 전라 | 53  | 185   | 188     | 187     | 188     | 55        | 순창(읍내장, 삼지장), 함열(읍내장, 황등장)                                                              |
| 경상 | 71  | 269   | 268     | 269     | 268     | 72        | 사천(읍내장, 팔장포장)                                                                           |
| 강원 | 26  | 51    | 51      | 51      | 51      | 26        |                                                                                         |
| 황해 | 23  | 109   | 109     | 109     | 109     | 23        |                                                                                         |
| 평안 | 42  | 145   | 143     | 145     | 143     | 42        |                                                                                         |
| 함경 | 14  | 42    | 42      | 42      | 43      | 14        |                                                                                         |
| 계  | 316 | 1,050 | 1,052   | 1,052   | 1,052   | 326       |                                                                                         |

\* 장시수에서 ㉠은 김대길, 앞의 책, 124쪽·133쪽; 이현창, 『한국경제통사』, 해냄, 제8판, 2018, 132쪽, ㉡은 이상배, 『경제를 살린 상품 생산과 유통』, 국사편찬위원회 편, 『장시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두산동아, 2007, 89쪽, ㉢은 홍희유, 『조선상업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350쪽에 기재된 숫자임.

기존 상업사 연구에서 『임원경제지』 수록 장시수를 대개 1052개로 보아 왔지만, 〈표 9〉에서 정리한 것처럼 필자는 1050개로 보았다.<sup>44)</sup> ㉠·㉡·㉢의 경우도 장시수는 1052개로 동일하지만, 도별 장시수는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316개 군현에서 1개 또는 2개의 장시에 ‘饑[풍부함]’라고 적은 뒤에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장시에서 주로 유통되는 물품을 적어 놓은 것이다. 기존 연구는 물품이 거래되는 장시수를 324~326개로 보았으나,<sup>45)</sup>

44) 필자도 지금까지의 관련 논문에서는 1052개로 표기하였으나, 1050개로 수정한다.

필자는 326개로 보았다.

『임원경제지』(예규지, 화식, 팔역장시)에 있는 김해 부내장(읍내장)에서 풍부하게 거래되는 물품은 「미곡·면포·삼베[마포]·송어[魴魚]·옹어[鱗魚]·농어[鱸魚]·잉어[鯉魚]·백합·담치[淡菜]·청어·대구·해삼·미역[海菜]·김[海衣]·전복[生鰓]·조기[石首魚]·문어[八梢魚]·갈대게[蘆蟹]·소금[鹽]·거위[鵝]·오리[鴨]·소[牛犢]」의 22종이다. <표 7>에서 언급한 김해와 그 인근 지역의 장시에서 유통되던 물품을 정리한 것이 <표 10>이다.

<표 10> 김해와 그 인근 지역 장시에서 유통되는 물품 비교

| 김해         | 양산             | 동래             | 밀양             | 창원             | 칠원             | 웅천           | 진해             | 함안             |
|------------|----------------|----------------|----------------|----------------|----------------|--------------|----------------|----------------|
| 부내장        | 읍내장            | 부내장            | 부내장            | 부내장            | 성외장            | 읍내장          | 내포리장           | 방목장            |
| 미곡         | ○<br>미두·<br>모백 | ○<br>미두·<br>모백 | ○<br>미두·<br>모백 | ○<br>미두·<br>모백 | ○<br>미두·<br>모백 | ○<br>미·<br>粳 | ○<br>미두·<br>모백 | ○<br>미두·<br>모백 |
| 면포         | ○              | ○              | ○              | ○              | ○              | ○            | ○              | ○              |
| 삼베[마포]     | ○              | ○              | ○              |                | ○              | ○            | ○              | ○              |
| 송어[魴魚]     |                |                |                | ○              |                |              |                |                |
| 옹어[鱗魚]     |                |                |                |                |                |              |                |                |
| 농어[鱸魚]     |                |                |                |                |                |              | ○              |                |
| 잉어[鯉魚]     |                |                |                |                |                |              |                |                |
| 백합         |                |                |                |                |                |              |                |                |
| 담치[淡菜, 홍합] |                | ○              |                | ○              | ○              | ○            |                |                |
| 청어         |                | ○              |                | ○              |                |              | ○              |                |
| 대구[大口魚]    |                | ○              |                |                |                | ○            | ○              |                |
| 해삼         |                | ○              |                | ○              | ○              | ○            | ○              |                |
| 미역[海菜]     | ○              | ○              |                | ○              | ○              | ○            |                |                |
| 김[海衣]      |                | ○              |                |                |                |              |                |                |
| 전복[生鰓]     | ○건복            | ○건복            |                | ○건복            | ○건복            |              |                |                |

45) 홍희유, 「18~19세기 전반기 장시들에서의 상품 유통의 발전」, 『역사과학』 5, 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 59쪽에서는 장시수는 1,052개, 상품이 적힌 장시수는 324개로, 홍희유, 앞의 책, 351쪽에서는 326개, 김대길, 앞의 책, 92쪽·103쪽과 이상배, 앞의 논문, 89쪽에서는 325개로 보고 있다.

| 김해          | 양산 | 동래 | 밀양 | 창원 | 칠원 | 웅천 | 진해 | 함안 |
|-------------|----|----|----|----|----|----|----|----|
| 조기(石首魚)     |    |    |    | ○  | ○  |    | ○  |    |
| 문어(八梢魚)     |    | ○  |    | ○  | ○  | ○  | ○  |    |
| 노해(蘆蟹, 갈대게) |    |    |    |    |    |    |    |    |
| 소금(鹽)       | ○  |    | ○  |    |    |    |    | ○  |
| 거위(鵝)       |    |    |    |    |    |    |    |    |
| 오리(鴨)       |    |    |    |    |    |    |    |    |
| 소(牛犢)       |    | ○  | ○  | ○  |    |    |    |    |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물품 거래 내용은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상도 성주 주내장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개 종류이다. 진주 주내장도 24개 종류다.<sup>46)</sup> 하지만 米荳를 쌀과 콩, 雉鷄를 꿩과 닭, 棗栗을 대추와 밤, 梨柿를 배와 감으로 나누면 종류는 더 늘어난다. 성주 주내장은 43개, 진주 주내장은 28개 종류이다. <표 10>을 보면 김해 부내장은 22종의 물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쌀·콩·맥류 등 곡물류, 면포·마포·면화 등 직물류, 어염, 소, 담배 등 생필품이 많이 유통되었다.<sup>47)</sup> 김해 부내장에서 유통된 물품도 전국의 장시에서 유통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삼베의 경우는 “안동의 蠶繭(비단)과 김해의 麻絲(삼베)가 도로에 잇달아 모두 왜인에게 수송되니”<sup>48)</sup>라고 한 것처럼, 조선전기부터 김해의 특산품임을 알 수 있다.

당시 326개 장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담배는 김해 부내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sup>49)</sup> 담배는 인접한 양산 읍내장, 동래 부내장, 밀양 부내장, 창원 부내장, 함안 방목장에서는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창원 부내장은 담배뿐 아니라 담뱃대(烟杯)도 유통되고 있었다.

담뱃대는 담배를 담는 담배통, 담뱃대의 입으로 무는 물부리, 담배통과

46) 김대길, 앞의 책, 101쪽.

47) 위의 책, 102~103쪽.

48) 『증중실록』 증중 4년(1509) 3월 24일.

49) 김대길, 앞의 책, 97쪽 <표 4>에서는 김해 부내장에서 거래된 주요 물품으로, 「쌀, 면포, 마포, 종이, 담배, 어염, 소」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임원경제지』에 종이와 담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물부리 사이에 끼워 맞추는 가느다란 설대의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sup>50)</sup> 설대는 인두로 지져서 무늬를 새기기 때문에, 몸통은 斑竹, 얼룩대나무라고 불렀다. 담배통은 구리나 놋쇠 백통, 물부리는 쇠뿔·수정·호박·옥으로 만들었다. 조선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사치품이 많이 생겼다. 담뱃대도 마찬가지였다. 김해에서도 사치스런 담뱃대가 유행하였다. 1801년부터 1824년까지 김해에서 유배생활을 한 이학규는 김해 지역의 풍속을 묘사한 77수의 연작시 「금관기속시」를 1819년에 지었다.<sup>51)</sup> 그 가운데 “물들인 담뱃대는 울금빛 변쩍이고, 작은 찜지 烏銅에 태극무늬 함일세. 민망하구나 열다섯 주막집 여인네, 으레히 한 발 되는 긴 담뱃대 물어 있으니”라는 시가 있다. 15살 주막집 여인이 물고 있는 담뱃대를 묘사한 시다. 그리고 ‘김해부에서는 울금빛 꽃무늬를 담뱃대에 물들였는데, 영남 밖에서도 이름났다. 다른 고을에서도 많이 본떠 물들였지만, 모두 이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주석을 덧붙였다.<sup>52)</sup>

울금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약재로 쓰거나 노란 물감을 만든다. 시에서는 울금으로 물들은 노란색을 가리킨다.<sup>53)</sup> 오동으로 만들고 태극무늬까지 새긴 담배통에, 울금빛으로 물들인 사치스런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는 주막집 어린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김해 지역의 사치·퇴폐 풍조를 부각시킨 것이다.<sup>54)</sup> 『임원경제지』에는 김해 부내장에서 유통된 물품으로 담배나 담뱃대가 없지만, 울금빛 고급 담뱃대는 김해 특산품으로 이미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표 10〉을 보면 김해 부내장의 유통 물품은 22개종이다. 그 가운데 농산물은 미곡뿐이고, 주종은 수산물이다. 18세기 말~19세기 전반기에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장시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수산물로는 명태, 청어, 조기, 대구, 고등어 등이다. 그 외에

50) 홍희유, 『조선수공업사(이조편)』, 사회과학출판사, 개정판, 2012, 255~256쪽.

51) 이학규, 『낙하생집』 13책, 海榴菴集(기묘, 1819), 金官紀俗詩.

52) 허경진, 앞의 논문, 200~201쪽; 김성진, 앞의 논문, 1998a, 300~301쪽. 「금관기속시」와 「금관죽지사」는 안미정, 앞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전문이 번역되어 있어 참고하였다.

53) 안미정, 앞의 석사학위논문, 72쪽.

54) 허경진, 앞의 논문, 202쪽.

도 도미, 송어, 민어, 넙치, 농어, 방어, 준치 등과 은구어, 붕어, 잉어 등 민물고기다. 그리고 전복, 굴, 섭조개, 조개, 낙지, 문어, 오징어, 해삼, 미역, 김 등 수산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sup>55)</sup>

김해 부내장에서도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김해 부내장에서는 8종의 물고기가 거래되었다. 즉, 송어·옹어·농어·청어·대구·조기·문어와 같은 바닷물고기와 잉어 같은 민물고기다. 그 외에도 해삼·전복·담치·미역·김 등도 유통되었다. 이학규가 1821년에 김해 지역의 시장을 보고 지은 「관시팔십운」에도, 청어·문어·홍합·감태 등이 묘사되어 있다.<sup>56)</sup> 이들 물품은 모두 김해 부내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이었다. 농산물보다는 수산물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sup>57)</sup> 낙동강과 남해안을 끼고 있는 김해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표 10>의 물품 가운데 「옹어·잉어·백합·노해·거위·오리」는 김해 인근 지역 장시의 유통 물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담뱃대의 사례처럼 『임원경제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김해 지역에서 풍부했다고 본다. 이 물품들이 김해에서 인근 다른 지역으로 유통된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해·거위·오리’ 세 물품은 『임원경제지』 326개 장시에 기록된 것 가운데, 김해 부내장뿐이다. 『임원경제지』에도 게(蟹), 생게(生蟹), 대게(紫蟹)는 기록되어 있다.<sup>58)</sup> 노해는 이름대로 ‘갈대게’, ‘갈대밭게’다. 이학규는 「금관기속시」(1819) 58번째 시 해설에서 “연안 포구 곳곳에서 작은 게가 생산된다. 모양은 방게와 비슷하다. 매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무렵, 천 마리 만 마리가 무리를 짓는다. 갈대에 달라붙어 있다가, 어두운 밤에 더욱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게를 ‘노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낙동강 하구 갈대밭에 사는 노해가 김해 지역의 특산임을 강조

55) 장국중, 『조선수산사』, 사회과학출판사, 개정판, 2010, 205~210쪽.

56) 이학규, 『낙하생집』 16책, 秋樹根齋集(신사, 1821), 觀市八十韻.

57) 변광석, 앞의 논문, 2004, 211쪽.

58) 게(蟹)는 충청도 홍산, 평안도 선천, 생게(生蟹)는 충청도 노성, 전라도 여산, 김제, 만경, 부안, 태인, 대게(紫蟹)는 경상도 영덕의 장시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있다. 이 노해가 김해 부내장의 주요 거래 물품인 것이다. 낙동강 포구와 김해 장시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이다.

그런데 『영남읍지』(1895년경)에 수록된 『김해읍지』에는 당시 김해 지역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시가를 알 수 있는 「各種 時價」라는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전체로는 50여 항목이다. 이 가운데 가격을 알 수 없는 것은 두부콩[造泡太]과 청포묵 녹두[靑泡菘豆] 두 품목이다. 생/건, 생/염, 대/중/소, 肉/熟肉 등, 같은 물품이라도 세분된 것이 있다. 이것을 단일 물품으로 본다면, 물품 수는 그보다 조금 적은 40여 종이다. <표 10>에서 정리한 『임원경제지』 수록 부내장에서 유통된 물품과 이 「각종 시가」를 대비하여 정리한 것이 <표 11>이다. 22종의 물품 가운데 「각종 시가」에도 나오는 물품은 모두 11종으로, 전체의 절반이다. 최소한 이 물품은 19세기에 김해 시장[포구나 장시]에서 유통되었을 것이다. 「곡물·직물·담배」 등 18~19세기에 이미 상품화하여 장시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던 물품들이 「각종 시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생선·건어물·젓갈 등 수산물이 주종을 이루며, 계란, 버섯류, 개, 쇠고기, 육포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왜면·오화당·설탕·후추」 4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다만 1876년 개항 이후의 자료라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개항 10여년 전인 1862년에 작성된 『塵人房節目』(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을 보면, 倭貨(일본 물화)의 판매는 商賈·塵人 외에는 일체 금지하며, 이를 경계 밖으로 내볼 때는 반드시 문적[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up>59)</sup> 개항 전에 이미 동래 지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일본 물품이 합법적으로 판매·유통되고 있었다. 개항 전에 동래 지역에서 일본 물품이 판매된 점을 감안한다면, 김해 지역에서 개항 전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59) 김동철, 『『동래부상고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동래상인-『동래무임선생안』과의 비교-』,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학회, 1993, 133쪽;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86~87쪽.



〈표 11〉 19세기 김해 장사에서 유통된 주요 물품과 19세기 말의 시가

| 『임원경제지』    | 『김해읍지』(1895년경) |        |       |                 |
|------------|----------------|--------|-------|-----------------|
| 부내장 물품     | 물품             | 단위     | 시가    | 비고              |
| 미곡         |                |        |       |                 |
| 면포         |                |        |       |                 |
| 삼베[마포]     |                |        |       |                 |
| 숭어[鮪魚]     | 숭어[秀魚]         | 1尾(마리) | 1전 2푼 | 作4吐. 眞秀魚 같음(8吐) |
| 옹어[鱗魚]     | 옹어[葦魚]         | 1마리    | 1푼    |                 |
| 농어[鱸魚]     | 농어[鱸魚]         | 1마리    | 2전    | 作6吐             |
| 잉어[鯉魚]     | 잉어[鯉魚]         | 1마리    | 2전    |                 |
| 백합         |                |        |       |                 |
| 담치[淡菜, 홍합] |                |        |       |                 |
| 청어(靑魚)     | 생청어(生靑魚)       | 1마리    | 1푼    | 鹽靑魚 2푼          |
| 대구[大口魚]    | 생대구(生大口魚)      | 1마리    | 1전 3푼 | 건대구 같음          |
| 해삼         | 생해삼            | 1개     | 1푼    |                 |
| 미역[海菜]     | 미역[藷]          | 1단     | 1전 3푼 |                 |
| 김[海衣]      | 김[海衣]          | 1貼(툇)  | 5푼    | 1툇=100장         |
| 전복[生腹]     | 대생복            | 1개     | 4푼    | 중생복 3푼, 소생복 2푼  |
| 조기[石首魚]    | 생조기(生石魚)       | 1마리    | 2푼    | 鹽石魚 같음. 補石魚 3푼  |
| 문어[八梢魚]    |                |        |       |                 |
| 노해(蘆蟹)     |                |        |       |                 |
| 소금[鹽]      |                |        |       |                 |
| 거위[鵝]      |                |        |       |                 |
| 오리[鴨]      |                |        |       |                 |
| 소[牛犢]      |                |        |       |                 |
|            | ㉠왜면(倭麪)        | 1근     | 2전 5푼 |                 |
|            | ㉡오화당(五花糖)      | 1근     | 1냥 8전 |                 |
|            | ㉢설탕[雪糖]        | 1근     | 1냥 8전 |                 |
|            | ㉣후추[胡椒]        | 1근     | 2냥    |                 |
|            | 홍어(洪魚)         | 1마리    | 3전    |                 |
|            | 전어(箭魚)         | 1마리    | 1푼    |                 |

| 『임원경제지』 | 『김해읍지』(1895년경)     |        |       |              |
|---------|--------------------|--------|-------|--------------|
| 부내장 물품  | 물품                 | 단위     | 시가    | 비고           |
|         | 모치어(毛致魚)           | 1마리    | 1푼    |              |
|         | 가물치(烏魚)            | 1마리    | 3전    |              |
|         | 붕어(鮪魚)             | 1마리    | 3푼    |              |
|         | 명태(明太)             | 1마리    | 2푼    |              |
|         | 생광어(生廣魚)           | 1마리    | 2전 5푼 | 건광어 7전(作25折) |
|         | 계란(鷄卵)             | 2개     | 1푼    |              |
|         | 물고기 알(魚卵)          | 1部     | 2전 5푼 |              |
|         | 새우 알(蝦卵)           | 1홉[合]  | 3전    |              |
|         | 연어 알(鱧卵)           | 1되[升]  | 4전    |              |
|         | 명태 알[太卵]           | 1부     | 1푼    |              |
|         | 은란(銀卵)             | 1되     | 3전    |              |
|         | 쌀새우젓(細蝦醃)          | 1되     | 2전    |              |
|         | 곤쟁이젓(紫蝦醃)          | 1되     | 5푼    |              |
|         | 굴젓(石花醃)            | 1되     | 1전    |              |
|         | 은어(銀口魚)            | 1마리    | 2푼    |              |
|         | 생도미(生道味)           | 1마리    | 1전 2푼 | 作4吐          |
|         | 말린 중간 민어<br>[乾中民魚] | 1마리    | 5전    | 作20折         |
|         | 모래무지(鮫魚)           | 1마리    | 1전 2푼 | 昨4吐          |
|         | 다시마(多士麻)           | 1조(條)  | 2푼    |              |
|         | 석이(石茸)             | 1되     | 5푼    |              |
|         | 송이(松茸)             | 1개     | 1푼    |              |
|         | 병어(餅魚)             | 1마리    | 5푼    |              |
|         | 생낙지(生落蹄)           | 1마리    | 2푼    |              |
|         | 쇠고기(黃肉)            | 1근     | 8푼    | 수육[熟肉] 같음    |
|         | 중포(中脯)             | 1접[貼]  | 3전    |              |
|         | 누령이(黃狗)            | 1口[마리] | 3전    |              |
|         | 겨[糠]               | 1石     | 3전    |              |
|         | 신삼어(申三魚)           | 1마리    | 3푼    |              |

## 5. 유통 물품과 왜관과의 관계

〈표 10〉에서 본 22종 물품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오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326개 장시 가운데 오리가 적힌 것인 김해 부내장뿐이다. 이학규는 「금관기속시」 74번째 시에서 “동짓날 집집마다 오리 사냥하고 돌아오니, 동래 시장에는 이후로 파는 이 거의 없네. 요사이 마침 漁場 소식 있으니, 대구가 새 맛이라 유달리 살져있네”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안 포구에서는 모두 오리 잡는 것으로 생계를 삼는다. 왜인들이 오리를 아주 좋아하므로, 장사꾼[商客]이 동래부에서 매매한다. 동지 이후에는 고기가 텅텅하고 맛이 없어서, 다시 매매되지 않는다. 어장은 가덕포에 있는데, 청어와 대구가 난다”<sup>60)</sup>라고 주석을 하였다. 시 본문과 주석을 보면,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에 사는 김해 지역의 포구민들은 오리 사냥이 주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시에서 언급된 ‘萊州市’나 주석에서 상인이 동래부에 가서 판다고 했을 때의 시장은 동래 지역의 장시는 물론, 초량왜관 정문 앞에서 열리는 식품 시장인 朝市(새벽시장)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거래되는 물품의 맛이 좋을 때 팔기 때문에, 김해 사람들은 동지까지는 오리를, 동지 후에는 청어·대구를 잡아 초량왜관 조시에서 팔았던 것이다.<sup>61)</sup> 이학규의 시에서 언급된 오리·청어·대구는 〈표 10〉에서 정리한 것처럼 김해 부내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이고, 특히 청어와 대구 어장이 가덕포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덕포는 가덕도에 있는 웅천현에 속하는 포구다. 진해와 웅천 주변의 가덕도 어장은 특히 대구 어장으로 유명하였다. 진해 대구어장은 연평 조기어장, 해주 청어어장과 함께 3대어장으로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sup>62)</sup>

오리나 대구는 당시 부산 초량왜관에 사는 일본인들이 즐겨먹는 겨울 음식

60) 이학규, 『낙하생집』 13책, 海榴菴集(기묘, 1819), 金官紀俗詩; 안미정, 앞의 석사학위논문, 127쪽.

61) 양홍숙, 앞의 박사학위논문, 108~109쪽.

62) 장국중, 앞의 책, 162쪽. 그리고 231쪽에서는 “진해만과 그 근처 수역에서 대구가 가장 많이 잡힌다”라고 하였다.

식이었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재판차왜로 왜관에 와서 머물 때인 1729년, 조선 관리로부터 추석과 세밀에 받은 선물에 「오리·청어·대구」가 포함되어 있다.<sup>63)</sup> 1734년 11월 공작미를 연장하기 위해 온 재판차왜 아사이 요자에몽(淺井與左衛門)은 대마도로 돌아갈 때까지 16개월 동안 왜관에 머물렀다. 그는 조선측 교섭관이나 통역관들과 여러 차례 음식 접대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1734년 12월부터 1736년 2월까지 18차례 접대는 식단 내용이 남아 있다. 18차례 가운데 8차례는 스키야키, 2차례는 오리나베(냄비)다. 오리냄비요리는 1734년 12월 15일과 1736년 11월 29일 있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요리를 먹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오리냄비요리는 유명하였다.<sup>64)</sup> 겨울철 별미인 오리냄비요리의 기본 식재료 오리는 낙동강 하구 일대에 사는 김해 사람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였다.

초량왜관 조시에서 물품을 파는 사람은 왜관 주변에 사는 초량촌 주민이었다. 물론 왜관과 가까운 부산진, 두모포(고관), 대치(대티), 사도, 당동 주민들도 참여하였다. 심지어 300~400리 떨어진 곳의 사람까지 왔다.<sup>65)</sup> 이 가운데는 김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김해, 가덕도(웅천, 진해) 지역이 왜관 조시 유통권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sup>66)</sup>

이학규가 쓴 「後浦行」이란 18수 시를 보면, 서울 사람 鄭暹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그는 후포에 있는 섬에서 남의 집에 붙어 살면서, 해산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의 집 안에는 대마도에서 나온 황금색 臙脂菊花를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sup>67)</sup> 전술한 김해 사람이 동래 장시나 왜관 조시에 가서 매매한 것을 고려한다면, 정섭을 김해에서 나는 해산물 등을 사서 동래시장에 내다파는 중개상인으로 보기도 한다.<sup>68)</sup>

63)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왜관』, 논형, 2005, 208쪽 <표 5>. 호슈가 받은 식료품은 추석 때는 20종, 세밀에는 25종이다.

64) 위의 책, 229~234쪽.

65) 김동철, 「17~19세기 부산 왜관의 개시와 조시」,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253쪽.

66) 양홍숙, 앞의 박사학위논문, 108~109쪽.

67) 이학규, 『낙하생집』 18책, 낙하생고[상], 卻是齋再集, 後浦行.

68) 김성진, 앞의 논문, 1998a, 307쪽.

이학규의 「관시팔십운」(1821)에는, ‘靑花日本瓷’(푸른 꽃무늬의 일본 자기)라는 구절이 있다.<sup>69)</sup> 김해의 시장에서 푸른 꽃무늬가 그려진 일본 자기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쓴 시라고 생각한다. 김성진은 ‘푸른 꽃무늬의 벼루는 일본의 자기’(靑華日本瓷)라고 하면서, 「자기로 만든 일본제 벼루가 김해의 5일장에서 매매되고 있었다는 얘기다」라고 하였다.<sup>70)</sup> 하지만 이 일본 자기가 벼루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제목이 「觀市(시장을 보고)」이지만 실제 김해 장사에서, 자기같은 일본 물품이 매매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학규와 비슷한 시기인 1801~1806년 기장현에서 유배생활을 한 심노송의 『남천일록』을 보면, 동래 읍내장에서 거래된 일본 물품(倭物)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들 물품은 심노송이 직접 구입한 것도 있고, 본 것도 있다. 심노송은 동래나 기장에 사는 지역민들로부터도 일본 물품(국수·담배·부채·다관·감굴·갈분·술·오화당·설탕 등)을 선물로 받았다.<sup>71)</sup> 특히 국수·담배·부채 같은 생필품을 많이 받았다.

이학규가 쓴 시를 보면 ‘부채, 풍경, 양산, 칼, 종이, 자기, 모기장, 분재, 술병, 굴, 음식(소면, 스키야키), 도박’ 등 다양한 일본 물품·문화를 김해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72)</sup> <표 11>을 보면 일본을 통해 들어온 물품(후추·왜면·오화당·설탕)과 그 가격을 알 수 있다. [표 11] ㉠㉡㉢㉣ 참조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五花糖이란 과자다.

앞서 언급한 아사이 요자에몽이 왜관에서 머무는 동안(1734. 11~1736. 2) 접대용·선물용으로 준 20회분의 과자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오화당이다. 오화당은 일본이 사무역[왜관 개시]을 통해 조선에 수출하던 물품인데, 선물용으로도 호평을 받던 과자다. 한 번 맛을 본 조선인은 ‘오화당은 별품입니다’라고 칭찬하기 일쑤였다. 값비싼 흰 설탕으로 만드

69) 이학규, 『낙하생집』 16책, 秋樹根齋集(신사, 1821), 觀市八十韻.

70) 김성진, 앞의 논문, 1998a, 306쪽.

71) 김동철, 「조선후기 동래지역의 유통기구와 상품」, 『역사와 경계』 97, 부산경남사학회, 2015, 226~231쪽.

72) 김성진, 앞의 논문, 1998a; 김성진, 앞의 논문, 1998b.

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었다. 일본에서는 ‘糖花’, ‘渾平糖’ 등으로 불리는, 작은 입자로 된 꽃모양 사탕과자다.<sup>73)</sup> 이학규가 1811년에 지은 20수 연작시 「草梁倭館詞」의 제6수에도 오화당이 나온다. “전각 서체로 쓴 큰 글자를 보면, 옷섭에서 오화당을 꼬집어낸다네”<sup>74)</sup>라는 구절이 있다. 물론 이때의 오화당은 조선 사람이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표 11>의 왜면(일본 국수)·오화당·설탕은 심노승이 기장에서 이미 경험한 물품이다. 심노승의 『남천일록』을 보면,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귀향할 때인 1806년 6월 1일에는 송문협에게서 왜면 2근, 1806년 6월 3일에는 鄕吏 이씨에게서 오화당 1근과 설탕 2근, 향리 송상중에게서 왜면 1봉을 선물로 받았다.<sup>75)</sup> 심노승에게 왜면·오화당·설탕 등을 선물 준 사람들이 이런 물품을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왜관이나 동래 장사에서 구입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세기 전반에 이미 동래·기장 지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일본 물품들을 쓰고 있고, 또 동래 읍내장에서 일본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김해 장사에서 자기 등 일본 물품이 유통되었을 개연성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력에 따라 일본 물품을 쓰는 개인 차이는 크겠지만, 기장·동래·김해 사람들이 일본 물품이나 문화를 경험하고, 사고, 즐기는 것은 점점 일상이 되고 있었다.

## 6. 맺음말

김해는 낙동강 강운과 남해안 해운이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다. 김해에는 많은 크고 작은 포구가 발달하였다. 이중환의 『택리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구의 하나로 김해 칠성포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강(포), 은진 강경포, 김해 칠성포는 우

73) 다시로 가즈이, 앞의 책, 243~244쪽.

74) 이학규, 『낙하생집』 9책, 因樹屋集[신미, 1811], 草梁倭館詞: 合山林太郎 의, 「李學遠 「草梁倭館詞」 譯注稿-19世紀의朝鮮實學者가詠った倭館·日本」, 『文學研究紀要』 53, 大阪大學 대학원, 2013, 47~48쪽.

75) 김동철, 앞의 논문, 2015, 228~229쪽.

리나라 3대 포구로 꼽힐 정도였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도 늘 칠성포가 언급되고 있으나, 실은 현존하는 『김해읍지』, 「김해지도」는 물론 연대기 자료에서도 칠성포를 확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관련 자료의 발굴이 절실하다. 김해지역 포구를 근거로 한 선상의 활동은 일곱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상 중에는 운송업을 하는 자, 남의 배를 빌어 상업하는 자, 선주가 선상을 겸하는 자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이들은 경상도 남해안 일대는 물론 멀리 강원도 평해나 간성까지 가서 상업하는 자도 있었다. 보다 다양한 사례가 검토되면 船商의 실체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김해 지역에는 18~19세기에 4개나 5개 장시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6개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읍내장(2·7), 신문장(3·8), 설창장(4·9), 생법장(5·10), 반송장(5·10일)의 다섯 장시가 기본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임원경제지』에 언급된 관장은 생법장과 같은 장시이거나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에는 5·10일장은 중복되고, 1·6일장은 없다. 따라서 김해 지역 자체로는 완결적인 5일장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다. 5·10일장 중 하나를 1·6일장으로 바꾸어 완결된 5일장 체계를 갖추지 않은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인접한 양산 읍내장, 밀양 삼랑장·수산장, 창원 자여장, 함안 고읍포장, 동래 독지장 등은 1·6일장이다. 김해 군현 안은 물론 인접 군현과도 장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영남청사례』(19세기 전반)에서는 경상도 71개 군현을 토지의 다소에 따라 대읍, 중읍, 소읍, 잔읍의 4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김해는 중읍이다. 『호구총수』(1789)를 보면, 71군현 가운데 인구는 11번째다. 그런데 『부역실총』(18세기 말~19세기 초)에 기록된 장세(장시세)를 보면, 대읍인 밀양은 인구가 6번째이지만 장세는 김해보다 조금 적다. 마찬가지로 대읍인 진주는 인구가 3번째이지만, 장세(71냥 4전 4푼)는 김해의 4분의 1 수준이다. 김해 장세는 대읍이면서 인구가 많은 밀양·진주보다는 많다. 이것은 토지·인구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업이 발달하여 장세가 많이 징수된 것을 뜻한다.

『임원경제지』에는 전국 316개 군현, 326개 장시에서 유통되는 물품이

적혀 있다. 김해 부내장 물품은 「미곡·면포·삼베·승어·옹어·농어·잉어·백합·담치·청어·대구·해삼·미역·김·전복·조기·문어·노해(갈대밭 계)·소금·거위·오리·소」의 22종이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미곡뿐이고, 대부분은 수산물이다. 수산물은 전국적인 유통 물품 양상과 비슷하다. 이런 수산물 유통 양상은 낙동강 하구에 자리잡은 김해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22종 가운데 노해·거위·오리 3종은 전국 326개 장시 유통물품 가운데 김해뿐이다. 노해(갈대계)는 낙동강 하구 갈대밭에서 많이 잡히는 게다. 이학규가 「금관기속시」에서 특별히 강조할 정도로, 노해는 김해 특산물이었다.

낙동강 연안 포구에서 잡히는 오리는 초량왜관의 일본인이 좋아하는 물품이어서, 포구민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였다. 이들은 오리를 잡아 동래 장시나 왜관 개시에서 팔았다. 왜관 일본인들은 겨울철 별미로 오리냄비요리를 즐겨 먹었다. 이 요리는 왜관을 드나드는 조선인에게도 인기 만점이었다. 김해 부내장의 주요 유통물품인 오리·청어·대구는 추석이나 세밑 때,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주는 대표적인 선물이였다. 이학규의 「관시팔십운」에는 ‘푸른 꽃무늬의 일본 자기’라는 구절이 있다. 시장에서 일본 자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고 쓴 시라고 생각한다. 이학규의 문집 『낙하생집』을 보면 「부채, 풍경, 양산, 칼, 종이, 자기, 모기장, 분재, 술병, 굴, 음식(소면, 스키야키), 도박(홀공이)」 등 다양한 일본 물품과 문화를 당시 김해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일본 물품과 문화를 경험하고, 사고, 즐기는 것은 점점 일상이 되어 있었다. 특히 「西臺는 흡사 서울과 같다」거나, 「物色이 서울에 비길 만하다」고 하여, 경제적으로 변화함을 강조하고, 경상도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좌도 울산과 우도 김해를 들고 있다. 이것은 김해 지역의 상업 유통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낙동강 하구에 있는 명지도는 조선후기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다. 이곳 소금은 바닷물을 가마에 넣고 끓여 만든 煮鹽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명지도에 ‘煮鹽最盛’이라고 부기하여 강조하고 있다. 1731년(영조 7)에 명지도 公鹽制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명지도 소금 이익을 국가 재정에 활용



하기 위해 1745년(영조 21)에는 하동면 산산리에 蒜山倉을 설치하였다. 산산창은 비변사에서 관할하였다. 정부는 소금 굽는 사람에게 쌀을 빌려주고, 대가로 소금을 받은 후, 다시 낙동강 상류 지역에 판매하여 얻은 이익으로 재정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서 경상감영이 관할하게 되었다. 1819년(순조 19)에 산산창은 폐지되고 말았다.<sup>76)</sup>

이처럼 김해 산산창은 공염제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조세창고이면서, 물화 유통의 근거지가 되었다. 김해 부내장의 22종 물품 가운데는 소금도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김해 명지도 염장을 둘러싼 소금 생산과 유통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아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

---

76) 강만길, 「조선 후기 공염제도고-명지도 염장을 중심으로-」, 『사학지』 4, 단국대 사학회, 1970; 이육, 「18세기 명지도 공염제 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한국사연구』 120, 한국사연구회, 2003.

## 참고문헌

### 1. 자료

『김해읍지』, 『낙하생집』, 『도로고』, 『동문휘고』, 『분성여지승람신증초』, 『변례집요』, 『여지도서』, 『임원경제지』, 『전객사일기』, 『택리지』, 『표인영래등록』

### 2. 논저

강만길, 「조선후기 공염제도고-명지도 염장을 중심으로-」, 『사학지』 4, 단국대 사학회, 1970.

고동환, 「조선후기 선상활동과 포구간 상품유통의 양상-표류관계기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1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_\_\_\_\_,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_\_\_\_\_, 「조선후기 상선의 항행조건-영·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3, 한국사연구회, 2003.

\_\_\_\_\_, 「상업과 도시」,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상), 지식산업사, 2008.

김대길, 『조선후기 장시연구』, 국학자료원, 1997.

\_\_\_\_\_, 「장시의 성립과 발전」, 국사편찬위원회 편, 『장시에서 마트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두산동아, 2007.

김동철, 「『동래부상고안』을 통해서 본 19세기 후반의 동래상인-『동래무임선생안』과의 비교-」,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학회, 1993.

\_\_\_\_\_, 「17~19세기 부산 왜관의 개시와 조시」, 『한일관계사연구』 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_\_\_\_\_, 「조선후기 동래지역의 유통기구와 상품」, 『역사와 경계』 97, 부산경남사학회, 2015.

김성진, 「조선후기 김해의 생활상에 미친 일본문물」, 『인문논총』 52,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1998.

\_\_\_\_\_, 「부산 인근지역의 생활에 미친 부산왜관의 영향」, 『동양한문학연구』 12, 동양한문학회, 1998.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왜관』, 논형, 2005.

- 민궁기, 『김해의 지명』, 김해문화원, 2005.
- 배은아, 「19세기 말 상업세의 징수와 성격-경상도 함안의 장세 징수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2, 이화여자대 이화사학연구소, 2002.
- 백원철, 「낙하생 이학규 문학연구」, 보고서, 2005.
- 변광석, 「18·19세기 경상도 남부지역의 상품유통구조」, 『지역과 역사』 5, 부경역사연구소, 1999.
- \_\_\_\_\_, 「조선 후기 김해 가락지방의 교통과 상품 유통의 발달」, 김해민속예술 보존회, 『김해 가락오광대』, 박이정, 2004.
- \_\_\_\_\_, 「조선후기 경상도 수로·해로의 교통망 발달과 오광대 문화」, 『역사학 연구』 59, 호남사학회, 2015.
- 심경호, 『한국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 안미정, 「이학규의 「금관죽지사」·「금관기속시」 연구변역」, 부산대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양홍숙, 『조선후기 동래 지역과 지역민 동향-왜관 교류를 중심으로-』, 부산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상배, 「경제를 살린 상품 생산과 유통」, 국사편찬위원회 편, 『장시에서 마트 까지 근현대 시장 경제의 변천』, 두산동아, 2007.
- 이욱, 「18세기 명지도 공염제 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한국사연구』 120, 한국사학회, 2003.
- 이현창, 「시장교환」, 한국고문서학회 지음,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0.
- \_\_\_\_\_, 『한국경제통사』, 해냄, 제8판, 2018.
- 장국종, 『조선수산사』, 사회과학출판사, 개정판, 2010.
- 조해훈, 「한시에 나타난 선계로서의 칠점산」, 『석당논총』 57,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3.
- 한상권, 「18세기말~19세기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 서울대 국사학과, 1981.
- 허경진, 「조선후기 한문학에 나타난 상업문화」, 『동방학지』 120,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3.
- 홍희유, 「18~19세기 전반기 장시들에서의 상품 유통의 발전」, 『역사과학』 5,

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

\_\_\_\_\_, 『조선상업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_\_\_\_\_, 『조선수공업사(이조편)』, 사회과학출판사, 개정판, 2012.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合山林太郎 외, 「李學達 「草梁倭館詞」 譯注稿-19世紀の朝鮮實學者が詠った倭館  
・日本」, 『文學研究科紀要』 53, 大阪大學 대학원, 2013.

〈Abstract〉

## Commodity Distribution Network and Distributed Goods in Gimhae in the 18<sup>th</sup> and 19<sup>th</sup> Centuries

Kim, Dong-Chul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commodity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major goods distributed in the Gimhae region in the 18<sup>th</sup> and 19<sup>th</sup> centuries focusing on *jangsi* and port. Local commerc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developed around *jangsi* and port. *Jangsi* operated centering around a regular market, which opened every five days. *Jangsi* had already established itself as an ordinary trading organization in the late 18th century. In ports, commercial activities took place mainly around ship-based traders. Port-based commercial activities were not just limited to ports but were connected to *jangsi*. Important ports also become centers of commerce within and between regions. Large and small ports developed in the Gimhae region, located next to the mouth of Nakdonggang River. In particular, Chilseongpo port w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orts of Korea. Ship-based traders from Gimhae not only went to the nearby Gyeongsang-do Province but also went as far as Gangwon-do Province to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There were about five *jangsi* in Gimhae. Due to the geographic features of Gimhae, there were a lot of fishery products distributed in Gimhae *jangsi*. The goods that were distributed in more than 320 *jangsi* across the country are documented in *Imwongyeongjeji* (林園經濟志). Among the goods, goose and duck were found only in the *jangsi* in Gimhae. Busan *waegwan* was close to Gimhae, and the Japanese residing there especially enjoyed duck hot pot as a delicacy during winter time. Ducks were caught in abundance in the Nakdonggang Estuary. The people who lived near the mouth of Nakdonggang River made a living by selling ducks at *waegwan*.

Because of the influence of *waegwan*, a lot of Japanese goods were distributed in the *jangsi* in Gimhae.

\* Key Words: Gimhae, Jangsi, Port, Waegwan, Waehwa (Japanese goods)

·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7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0일 · 게재결정일: 2020년 2월 10일